

흑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 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작업 전 현장감독 실시
- 산소·유해가스 측정 등 3대 안전수칙 미준수 시,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흑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31.부터 9.30.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①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충분한 환기, ③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책임자	과 장	박종일 (044-202-887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윤현욱 (044-202-8873) 최성필 (044-202-8871)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온남이 (044-202-8902)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 산소·유해가스 측정!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알 수 없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2 충분한 환기!

작업 전,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하십시오

3 호흡보호구 착용!

구조하러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세요

밀폐공간 질식사고

밀폐공간은

환기가 부족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사망사고 위험이 큰 장소**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오페수처리, 맨홀, 축산분뇨처리 설비**에서 질식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정화조



분뇨처리장



맨홀



원료 저장탱크



침전조



반응기



식품발효·저장소



비저선 부력탱크



용접 배관내부